

전북발전연구원

1] 종합의견

▣ 총 평

- 연구사업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비전과 전략목표의 구체화와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연구과제 건수 혹은 실국 소통 건수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전략목표와 연계한 체계적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부서의 성과지표와 개인별 성과지표가 전사적으로 연계되어 성과지표의 계층화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활동 및 사업성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 아젠다(분야별 중점 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또한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 연구관련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성과 영역 가운데 연구과제의 성과를 제외한 연구과제의 관리, 연구결과의 활용 부문에서는 정량적 지표가 직전 3년간 평균 실적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도 실적보다는 저조하였다. 연구 성과의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공통부문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지역 사회적 책임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연구사업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연구윤리 개선을 위해 부패위험 자가진단제와 부조리신고센터 및 클린센터 등의 운영이

매우 긍정적이다.

- 비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제시된 3대 전략목표 달성이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되고 있는지 의문시되며,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상품 구입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이 거의 전부로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 연구수행계획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연구 결과 성과 연계성, 연구자문위원회의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들 수 있다.
- 발굴회의의 시스템화·정례화를 통한 의사소통과 매주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있다.
- 연구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부서 및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 부서, 구성원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양적평가, 질적평가, 수요자평가 등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다.
-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률의 개선과 부설 여성 정책연구소의 별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업부문

- 2013년도에 연구과제 착수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를 37회 운영하여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강화하였다. 진행과정에서는 성과제고를 위해 연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신규로 도정 분야별 중장기 연구로드맵 구체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제안 및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아젠다(분야별 중점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활용도 제고를 강화하였다.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양적평가 기준의 매뉴얼화 및 연구자문위원회 강화,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또한 2013년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누적관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 2013년도 연구보고서 평가 평균점수는 89.64 점으로 평가산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 5점 만점에 3.62점, 연구보고서 향상도는 평가산식에 따라 5점 만점에 3.16점으로 저조한 편이다.

2 정책제안

▣ 공통부문

- 비전과 비전 실현수단으로서의 전략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후 전략수립체계(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세부추진사업) 및 실행체계(단계별 발전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의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된다.
- 지역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연구과제 건수 혹은 실국소통 건수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요한 것은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률의 개선과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별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업부문

- 연구 성과의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system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거 같다. 이의 바탕에는 끊임없는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었기에 가능하다 평가된다. 향후에도 전산화 작업을 중심으로 원외의 수요자들도 더욱 간편하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과제>

- 연구 성과의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3 우수사례

미래전북 비전수립 활동을 통한 선도사업 발굴 강화

가. 추진배경

- 전라북도의 발전여건 변화, 새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으로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도래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여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
- 정책아젠다 예측을 통해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이 1년간 진행할 과제의 중점 연구사업계획 등과 연동

나. 사업개요

- 분야별 전략목표 구체화
 - 산업, 대중국, 농업농촌, 새만금, 지역개발, SOC, 환경, 문화, 관광, 공공정책, 여성정책, 사회복지 등 주요분야별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목표, 전략 등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로드맵 구체화
- 도정현안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소통 강화
 - 정부의 정책이슈 및 전북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도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도와 연구원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소통회의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전라북도의 선도사업 발굴 강화
 -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대형국책사업과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연구원의 핵심기능으로 설정하고, 전 연구원의 역량 결집

다. 추진실적

- 분야별 전략목표(중장기 연구로드맵) 구체화

- 전라북도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전략 등 방향 설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분야의 구체화
- 2013창조전북 기회와 도전 발간 : 첫째, 전환속의 전북 기회와 도전, 둘째, 전라북도 산업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셋째, 특화전략으로 지역을 개발, 넷째, 이제는 삶의 질 시대 등 총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

○ 전라북도-전북발전연구원 소통 강화

- 전북발전연구원 - 정책기획관실간 소통회의 수시 개최
 - 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실)과 전북발전연구원간 도정현안 아젠다 토론회의
 - 각 실국과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수시 소통회의는 2013년도 약 300회 진행
- ※ 전북발전연구원 - 도지사·실국장 - 도내외전문가 소통 등 2013년도 총 15회

○ 도민과 연구성과 적극적 환류 노력

- 이슈브리핑 발간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지역사회에 제기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분석 정책제안 및 연구과제의 결과를 주민과 소통 (출간된 이슈브리핑은 도 간부 회의시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를 통해 소관 실국의 정책 또는 시책으로 반영 되어 관리)
 - '13년에는 25건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연구과제 성과와 더불어 도정현안 및 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확대
- ※ '13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결과 1,197회 언론 기사화 (전년대비 200% 이상)

○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

- 전북발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기 위해 전북발전연구원 정책고문단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분과별 포럼 운영

① 전라북도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2015년 국책사업 발굴

②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분야별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

- 운영기간 : 2013. 2월 ~ 2013. 11월(10개월)
- 분과구성 : 7개 분과(산업경제, 지역개발, SOC, 문화관광, 농업농촌, 환경, 사회복지)
 - 연구원 정책고문단이 분과별 포럼 좌장을 맡고, 수도권 및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분과별 포럼위원
 - 연구원 박사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포럼운영의 내실화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도 과장이 공동 간사로 참여

※ 2013년도 7개 분과에서 총 18건을 발굴하고, 도와 협의를 통해 '15년 대상사업으로 국책사업 8건, 국가예산사업 5건을 추진키로 결정

- 국책사업 : 한식 기반의 창조정 도시재생(K-Food 콤플렉스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천JCT~서김제JCT) 확장, 호남고속도로(삼례C~김제JCT) 확장, 완주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량(국도30호선), 수출원에 거점단지 조성, 근대역사문화 철도관광벨트 조성, 전주 에코파크(Eco Park) 조성
- 국가예산사업 : 한옥진흥원 설립, 한옥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라북도 도시교통혼잡도로 개선, 6차산업화 벨리, 동진강 갈대습지공원 조성

○ 2014 전북도정 10대 아젠다 제시

- 연구원차원에서 2014년에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아젠다 및 아젠다별 실천 전략을 구상하여 2014년 전북도정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도민과 공감대 형성

※ 10대 아젠다

- ① 발전 판의 전환 :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발전
- ② 농생명(農生命) : 농도(農道)에서 '농생명 수도'로
- ③ 한문화(K-Culture) : 전통문화도시에서 '한문화 창조거점'으로
- ④ 힐빙(Heal-Being) : 힐링·웰빙을 넘어 '힐빙'
- ⑤ 새만금 내부개발 2.0 : 새만금을 창조경제 요람으로 본격 개발
- ⑥ 강소성(江蘇省) : 중국진출, 강소성과의 상생전략부터
- ⑦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로 푸는 민생 살리기와 일자리
- ⑧ 이전기관과의 협력 : 혁신도시 정착과 이전기관 협력 특화전략
- ⑨ 전북형 맞춤형 복지 : 삶의질 플랜으로서 전북형 맞춤형 복지
- ⑩ 빅데이터(Big-Data) : 정부 3.0과 빅데이터, 그리고 전라북도

라. 기대효과

- 전북발전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전략 등 방향 설정을 통한 도정 선도
- 대형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통한 전라북도 성장동력 창출
- 정책 아젠다 및 연구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도민 소통을 통해 여론형성 및 씽크탱크로서의 연구원 위상 강화

전략 및 리더십

I. 전략 및 윤리경영

총 평

- 연구사업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비전과 전략목표의 구체화와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잘된 점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지역 사회적 책임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연구사업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연구윤리 개선을 위해 부패위험 자가진단제와 부조리신고센터 및 클린센터 등의 운영이 매우 긍정적이다.

미흡한 점

- 비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제시된 3대 전략목표 달성이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되고 있는지 의문시되며,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상품 구입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이 거의 전부로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개선할 점

- 비전과 비전 실현수단으로서의 전략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후 전략수립체계(미션 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세부추진사업) 및 실행체계(단계별 발전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의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된다.
- 지역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

1. 비전 및 전략

-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지역 사회적 책임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기관의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미션과 기관의 공유된 가치관 혹은 신념을 의미하는 경영철학이 개념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전 그 자체와 하위 전략목표의 구체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사업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미션과 비전의 공유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류수준의 연구원 실현이라는 비전의 달성을 위한 벤치마킹 등 조직 차원의 노력과 제도개선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
- 제시된 비전 자체가 전북도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관의 여타 이해관계자 관점의 반영이 미흡하며, 일류연구원이라는 비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제시된 3대 전략목표 달성이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 전략수립 체계에서 미션 및 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전략과제별 추진내용의 체계를 갖추고, 이를 다시 단계별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단계별 전략(혹은 경영)목표→단계별 전략(혹은 경영)과제→단계별 추진내용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이들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전략목표에 기초한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의 제시가 미흡하며, 전략과제와 세부추진사업의 세부내용(사업내용, 기간, 예산)을 담은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 윤리경영 및 지역사회 공헌

- 윤리헌장, 강령, 행동지침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 및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가 돋보인다.
- 윤리의식이 개선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별도의 체계가 있다.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 등을 잘 구비하고 있고,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상품 구입(1,400여만원), 온누리상품권 구입(170여만원) 등이

거의 전부로 활동이 미약한 편이고, 구입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

- 장애인 및 유공자 채용 시 가산점 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사회 약자층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7건)이 있었다. 특히 설문조사 시행 시 도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 후 운영하여(연163명), 전문요원 양성 및 지역 소외계층(노인 돌보미)을 위한 지원활동을 행한 것은 특기할만하다.

II. 기관장 리더십

총 평

- 발굴회의의 시스템화·정례화를 통한 의사소통과 매주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연구수행계획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연구 결과 성과 연계성, 연구자문위원회의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하였다.
-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연구과제 건수 혹은 실국 소통 건수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잘된 점

- 성과관리(양적 평가)기준의 매뉴얼화를 들 수 있다. 연구진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구사업의 시간계획과 목표설정을 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목표달성여부, 질적 평가, 수요자 평가 성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 누적관리를 들 수 있다. 연구수행계획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연구 결과 성과 연계성, 연구자문위원회의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들 수 있다.

미흡한 점

- 전북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분야별 정책고문단은 총 27회의 운영실적을 보여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 발굴회의의 시스템화·정례화를 통한 의사소통과 매주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있다.

개선할 점

-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연구과제 건수 혹은 실국소통 건수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요한 것은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의사소통

- 발굴회의의 시스템화·정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있고, 매주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지실사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이 많음을 확인).
- 전북투자유치자문단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제시 하지 않았다. 다만 분야별 정책고문단은 총 27회의 운영실적을 보여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7개 분야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6개 분야만 나타나 있다. 도와 연구원간의 소통노력은 총 5회중 4회까지 3월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5회제는 12월에 개최되어서 약 9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등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경영혁신 성과와 제도화

- 성과관리(양적 평가)기준의 매뉴얼화를 들 수 있다. 연구진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구사업의 시간계획과 목표설정을 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목표달성여부, 질적 평가, 수요자 평가 성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 누적관리를 들 수 있다. 연구수행계획서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연구 결과 성과 연계성, 연구자문위원회의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들 수 있다.
- 수요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였다. 정부의 정책 이슈 및 전북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전북도와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전북도와 연구원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북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이슈 제안 등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회의를 활성화하였다.

5.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 성과목표 계약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크게 도정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사업 발굴 그

리고 도정 정책연구 확대 및 소통 강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사업발굴이나 연구과제 건수 혹은 실국소통 건수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요한 것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성과목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경영효율화

Ⅲ. 경영효율화

총 평

-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조정을 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과 결제단계 축소 및 위임전결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시킨 것으로 평가 된다.
- 개인직무 및 전공분석을 통한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신규 연구원의 경우,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을 두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계약을 하고 있어 인력운용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관리체계를 양적평가, 질적평가, 수요자평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 지표가 계량화와 계층화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 충원률 높이고 부설 기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된 점

- 연구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부서 및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 부서, 구성원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양적평가, 질적평가, 수요자평가 등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다.
- 개인직무 및 전공분석을 통한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주 단위의 업무목표 설정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또한 원장과 팀 및 개인별 면담을 통해 개인목표 설정 및 관리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흡한 점

- 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률이 낮아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다.
-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별도 운영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 내의 부서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률의 개선과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별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조직관리

- 조직을 2실 6팀제에서 5부 2팀 여성정책연구소로 직제조정을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결재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임전결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별도 운영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 내의 부서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업무분석을 통하여 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원부서 인력비중도 17.3%로 나타나고 있고, 직종별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 33명에 대한 충원률이 87.8%로 낮아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부서별 워크숍과 단합대회, 원장과 만남의 장, 동아리 활동지원, 상조회, 선택적 복지제도 등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활성화 노력이 양호하다.

7. 인적자원관리

- 개인직무 및 전공분석을 통한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주 단위의 업무목표설정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원장과 팀 및 개인별 면담을 통해 개인목표 설정 및 관리를 하고 있다.
-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성 강화를 위해 최종합격자는 수습연구원으로 6개월 동안 임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수습연구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계약을 하고 있다.
-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해외벤치마킹 지속유지 등을 통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경력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별, 부서별 및 개인별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성과관리체계

-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부서 및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 부서, 구성원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양적평가, 질적평가, 수요자평가 등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다.
- 전략목표와 연계한 체계적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부서 성과지표와 개인별 성과지표가 전사적으로 성과지표가 연계되어 있어 성과지표의 계층화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 성과목표에 대한 실행 성과를 근무성과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성과결과를 성과목표치와 비교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성과시스템 개선도 하고 있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이 양호하다.

9. 재무예산관리

- 비영리법인 예산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 회계정보 전산화를 통한 재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석이 용이하다.
- 회계처리도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이 기안결재단계-검수단계-지출단계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출되었다.
- 회계전문직원이 2명 배치되어 있으나 자격증 취득 등이 미비하고 교육이수가 5회에 걸쳐 행하여져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 결산이 관련 법률과 결산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 결산감사 시행으로 정확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중장기 기관목표 및 전략과 연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예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 분석에 의한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다.
-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분기별 재무예산 평가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예산집행과 재무결산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재무결산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0. 전년도 경영개선 권고사항 등 도 정책이행 수준

- 전북도 및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부합하도록 연구원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전략,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외부 자문단과 도·실·국, 내부 소통회의를 통해 전략목표의 구체화 및 공유를 추진하였다
 - 중·장기계획 : 비전과 전략 2015 수립, 연구사업 PMS 구축
 - 부서실·국 소통 1,700회, 소통회의 15회 개최
- 윤리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공헌을 위해 소외계층 우대 노력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부패방지 교육, 자가진단 등 실시
- 연구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하고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도민 행복 제고에 대한 분야별 연구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 양성평등 부설기관 운영
 - 연구성과 이슈브리핑, 뉴스레터, 경제동향서 수시 발간 배부
- 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향상이 요구되고 도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과 전북 실질적인 썩크탱크 역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 부문

V. ~VI. 주요사업활동 및 사업성과

총 평

- 전북발전연구원의 주요사업 활동 및 사업성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 아젠다(분야별 중점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또한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 연구관련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성과 영역 가운데 연구과제의 성과를 제외한 연구과제의 관리, 연구결과의 활용 부문에서는 정량적 지표가 직전 3년간 평균 실적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도 실적보다는 저조하였다.
- 연구 성과의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적절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화 작업의 추진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 요

목 표

- 2013년도 전발연의 사업활동 주요목표는 연구과제 계획체계의 적정성과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정성 그리고 연구결과 활용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과제 자체개발 노력 강화, 연구과제 수행체계 혁신 및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그리고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

- 2013년도에 연구과제 착수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를 37회 운영하여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강화하였다.

-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신규로 도정 분야별 중장기 연구로드맵 구체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제안 및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 아젠다(분야별 중점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활용도 제고를 강화하였다.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양적평가 기준의 매뉴얼화 및 연구자문위원회 강화,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 2013년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누적관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구과제의 관리	-적정한 외부전문가 평가참여 -적정한 연구지원 활동 -국외 산.학.연 교류활성화 -국내 산.학.연 교류 확대	-외부전문가 평가참여율 (89%) -연구지원활동 비율 (273%) -직전 3년간 평균대비 (126.6%) -직전 3년간 평균대비 (141.6%)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개선 -연구과제 정책고객만족도 -연구원 1인당 학회발표 실적 -연구원 논문게재실적 -전체연구과제 중 시책개발비율	-직전 3년간 평균대비(101.24%) -연구과제 정책고객만족도 (평균 87.79점) -직전 3년간 평균대비 (120%) -직전 3년간 평균대비 (122.61%) -100%
연구결과의 활용	-외부 접근용이성 제고 -연구결과물 배포실적	직전 3년간 다운로드 평균대비 (119.28%) 직전 3년간 평균대비 (118.31%)

▣ 평가결과

잘된 점

- 2013년도에 연구과제 착수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를 37회 운영하여 사례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를 강화하였다. 진행과정에서는 성과제고를 위해 연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신규로 도정 분야별 중·장기

연구로드맵 구체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제안 및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아젠다(분야별 중점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활용도 제고를 강화하였다.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양적평가 기준의 매뉴얼화 및 연구자문위원회 강화,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또한 2013년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누적관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미흡한 점

-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만족도는 정책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볼 때 양호한 편이나 과제의 정책반영률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연구보고서가 직전 3년 대비 개선이 있었으나 100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89.6점으로 좀 더 노력이 요구된다.

개선할 점

- 연구 성과의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system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거 같다. 이의 바탕에는 끊임없는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었기에 가능하다 평가된다. 향후에도 전산화 작업을 중심으로 원외의 수요자들도 더욱 간편하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과제의 계획체계

- 연구과제 선정체계 특징으로 분야별 로드맵 중심, 연구사업 소위 및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추진체계가 적절하다.
- 전북도와 연구과제 선정 검토회의를 통해 연구원 제안과제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여 시, 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 당해연도 복지과제 비중은 17.3%로 직전 3년 평균 복지과제 비율 16.3% 대비 106% 증가하였다.

- 전발연의 연구과제의 계획 체계는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다.

13.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체계

- 2013년도에 연구과제 착수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를 37회 운영하여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강화하였다. 진행과정에서는 성과제고를 위해 연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연구과제 성과검증 및 관리를 위해 연구성과에 중점을 둔 “정성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사업단위 성과를 비중에 따라 개인성과에 반영하였다.
-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개선을 위해 연구사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을 구축,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 토론회 및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차관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전반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관리체계는 적정하다 평가된다.

14. 연구결과 활용 관리체계

-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7개 분과별 정책고문단과 초빙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업기구 운영을 통한 정책반영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북성별 영향분석 평가센터 및 전북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신규로 도정 분야별 중장기 연구로드맵 구체화를 추진하였으며, 도정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정책 아젠다(분야별 중점시책 등) 보고회 등을 추진하였다. (도지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
- 2013년도 정책활용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을 평가해 볼 때 연구결과 활용관리체계는 우수하다 평가된다.

15. 연구과제의 관리

- 2013년도 연구평가의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는 199명으로 전체 평가위원 수 224명 대비 89%이며, 2013년도 지원 활동건수 303건, 연구과제 건수 111건으로 273%를 달성하

였다.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양적평가 기준의 매뉴얼화 및 연구자문위원회 강화, 연구사업 PMS 구축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 기반을 정착시켰다. 또한 2013년 성과관리 전산화를 통한 목표누적관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 과제배분은 “연구사업 수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성과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2013년도 전공반영정도 평가는 전공일치 연구원 수 196명에 각 연구과제당 참여 연구원 수가 196명으로 100%를 달성하였다.
- 국, 내외 산학연 교류 및 운영실적에서 2013년 국외 교류는 30건으로 직전 3년간 교류 평균 대비 126.6%이며 2013년 국내 산학연 교류는 152건으로 직전 3년간 교류평균 대비 141.6%를 달성하였다.
- 연구과제 관리체계는 적정하며,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크도 적정하다 평가할 수 있다.

16. 연구과제의 성과

- 연구원의 학회발표 실적은 2013년 1인당 1건이며 이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120%로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논문게재 건수 또한 전년대비 122.6%를 달성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만족도는 이슈브리핑 정책반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평균점수가 87.8점으로 정책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예상할 때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여 과제의 정책반영률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연구과제를 시책과제 중심으로 개발하여 전체 대비 시책과제 비율을 100% 달성한 것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양적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과제의 질적인 면에서는 전발연이 전북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감안할 때 타 종합연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북발전 선도 기관으로써 노력이 요구된다.

17. 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결과의 확산 및 홍보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2013년도 다운로드 수가 41,102 건이며,

직전 3년간 평균 다운로드 수는 33,620 건으로 119.28%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보고서 배포실적으로는 2013년도 배포 기관수 575처로, 직전 3년 연구 성과물 배포기관 평균 486처 대비 118.31% 증가하였다.

-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발연은 토론회 개최 및 책자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3년도 연구과제 방향을 전북도의 성장동력 확충과 도정현안 및 정책지원으로 정함으로써 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정 분야별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체화하였고,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제안 및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도정 현안 신규시책 및 운영방안 수립을 통해 정책활용도 제고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구비는 매우 적정하다 평가할 수 있다.
- 전발연은 연구성과 인센티브 제도로 보수규정, 실적평가금 지급규칙, 포상규칙, 특별상여금 지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 운영기준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 2013년도 연구성과 인센티브 적용사례로 최대 7.5%에서 1.3%까지 연봉조정을 하였으며, 실적평가금은 최대 28.3%에서 최소 5%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인센티브 연계 제도적 운영은 매우 적정하다 평가할 수 있다.
- 전발연의 전반적인 연구결과의 활용은 매우 적정하다 평가된다.